

2013 2.10 연중 제 5 주일

제 1 독서 : 이사야서 6,1-2 7,3-8 <제가 있지않습니까 ? 저를 보내십시오.>

제 2 독서 : 코린토 1 서 15,1-11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모두 믿게 되었습니다.>

복 음 : 루카 5,1-11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제 1 독서에 나오는 이사야 예언자는 구약시대에서 엘리야와 모세 다음으로 유명한 예언자 이십니다. 오늘 독서에서는 이사야 예언자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묘사 되고 있습니다.

제 2 독서에서는 바오로성인에게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되었는지,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신경**의 내용이 읽혀 집니다. 구약시대에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사야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하며 읽혀지는 것이 유대인 들의 신경이듯이, 오늘 제 2 독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신경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또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부르심에대해서 이야기를 하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분은 2000 여년전에 우리 교회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서 존경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르심에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사야, 바오로, 베드로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수억명의 인류가 그분들을 성인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보다도 더 존경 받고 중요한 이분들이 하느님앞에서 “나는 하잘것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자신은 하느님 앞에서 우리자신을 어떻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까? 하느님은 어떤분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까? 지난주 강론때에 우리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반복하여 말씀 드리면 우리의 자화상은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는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사랑으로 충만되어져야 합니다. 하느님을 표현하는 뜻의 영어(하느님은 ETERNAL 로 우리인간은 COETERNAL 로 표현됩니다)가 우리말로 그 뜻이 정확히 표현되지는 않지만 하느님은 또한 영원하고 무한하신 존재이시며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랑이시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과연 하느님앞에서 어떻게 나를 드러내고 있는지? 그분 앞에서 그분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나의 가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그분의 가치를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미국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어떻게 종료되었는지를. 한때 미국에서 그렇게 추앙을 받던 엘비스 프레슬리, 마르린 몬로, 마이클 잭슨, 또 얼마전에 죽은 흑인가수등.. 그들이 왜 죽음을 그렇게 맞이하여야 했을까요? 세상사람들이 원하는, 그토록 그 많은 유명세, 돈, 명예 등등 이런것들이 그들의 삶을 결국은 지켜주지 못한것이 분명하지요. 마더테레사를 보십시오, 또한 요한 바오로 2 세를 보십시오. 그분들 또한 유명하셨던 분들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분들은 세계를 가졌지만, 가진것을 모두 버리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신 분들입니다. 부부관계를 보십시오. 결혼초에는 그렇게도 이쁘게만 보이던 아내가 귀찮게 여겨지고, 아내들 역시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늙름하고 멋있게 보이던 남편이 초라하고 찌들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늘 상대방이 변하였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나의 모습은 보질 못합니다. 히스페닉공동체를 보면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이들은 흥얼 흥얼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일을 하는 반면, 어떤이들은 고용주에 대한 불평, 불만을 입에 담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하는 일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논리로서는 도무지 가능할수가 없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나를 헐뜯고 나를 괴롭히는 그사람을 우리가 사랑할수 있을때에 우리는 행복해 질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 보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해 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모두 **하느님의 사랑을 본 받아 그분의 모상대로 살아갈수있도록** 이미사중에 기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1-2 7.3-8

우찌야 임금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솟아오른 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마다 날개를 여섯씩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 외치는 소리에 문지방 바닥이 뒤흔들리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나는 말하였다. “큰일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뵈다니!”

그러자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 7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그때에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하고 내가 아뢰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 서 말씀입니다. 15,1-11<또는 15,3-8.11>

형제 여러분, 내가 이미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도 전해 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 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열두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한 번에 오백 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8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하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1-11

예수님께서 겔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물에서 조금 저어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물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